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회복한 70인 제자 읍 -복음으로 여는 읍기- 읍기 23:10, 야고보서 1:2-4

정윤돈 목사님

- * **읍23: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 * **약1:2-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모든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자제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지 있는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과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만한, 나에게 주어진 헤브러미션을 찾아내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라고 나온다. 순금과 정금은 24K를 의미한다. 금을 처음에 캐면 돌덩어리이다. 멀리서 보면 돌과 같고 가까이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금광석과 일반돌은 전혀 다르다.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의 신분은 금광석이다. 아직 24K는 안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불신자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가치가 다르다. 소중함의 가치가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고 단련해서 18K, 24K로 만들어야지 보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24K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더니, ‘캐럿’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한 줌에 쥐면 24개가 쥐어진다고 한다. 그것을 소금과 바꾸었는데, 적게 잡으면 껍데기나 다른 것 때문에 18개가 잡힐 때가 있고 14개가 잡힐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도를 말하는 것이다. 24개가 잡힌다는 것은 100%열매라는 의미이다. 다이아몬드의 ‘캐럿’은 C이고 금은 K로 시작한다. 24K가 되면 금괴에 999.99라고 써 있다. 1/1000로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읍은 하나님이 처음 봤을 때 금이다. 당대의 18K금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24K가 안 되는 것이다. 최첨단 반도체에 금을 사용하려면 9가 6, 7개가 될 정도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읍을 최첨단 반도체로 쓰임받게 하려는데, 자신은 24K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흠과 티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온전하게 나아오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은 읍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니 너희가 읍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조금하면 읍답을 빨리 주시지 않는다. 조금함 자체가 불신앙이다. 불신앙의 큰 특징이 화내고, 불안하고, 빨리 해야 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불순물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연단시키신다. 24K가 되려고 해도 1000도에서 불순물을 빼내는데 3번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40일이 걸린다고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오히려 기뻐 하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만약에 금광석이라고 한다면 제련소에 들어가서 정금으로 단련되어 결과는 정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고난이 주어진다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것이다. 읍은 그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여정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사오니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도 기쁘게 받아드립니다.’ 성경 속 램넛드들은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았다. 그러니까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허상을 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의 것을 가지고 불만, 불평, 어려워하고, 불신앙하는 것이다. 사탄의 증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니 너희가 읍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의미있는 고생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광야는 의미있는 축복의 발판이다. 그러나 의미없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고생,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는 고생은 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고민과 걱정과 염려는 모두 다 축복으로 다가온다. 갈등만 하고 답이 없더라도,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읍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읍에게도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셨다. 준비가 안 되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연단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는지 토론해야 한다.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문제가 왔으면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오늘 읍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읍의 인내와 그 결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읍은 당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읍에게 고난을 줄 것을 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그 이후로 읍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읍은 승리하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두 배로 회복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을 감절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감절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미한다.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감절의 축복을 주셨다. 읍은 장자는 아니지만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읍은 영적인 장자이다. 영적인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결국 두 배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장자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읍기서는 읍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과정과 그 고난 중에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읍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결국은 고난 중에 상실한 모든 축복을 다시 두 배로 회복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다.

1. 첫 번째에서는 먼저 읍이 당한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한두 가지를 주면 이기기 쉽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주신다. 특수훈련 시키는 것이다.
 - (1) 첫 번째로 닥친 고난의 시작은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인 것이다. 읍기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사환이 읍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온 것이다.
 - (2) 두 번째는 얼마 되지 않아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리버렸다. 읍기 1장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읍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다. 스바 사람들이 빼앗은 것은 못된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것이니 ‘이건 뭐지?’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 (3) 얼마 되지 않아 읍은 10명의 자녀들을 한 날에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읍기 1장 18절과 19절을 보겠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만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러나 읍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읍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읍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의 고난이 처음 하루, 이틀, 1년이면 감사하고 찬송드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10년, 100년, 천 년이 되면 원망이 튀어나온다.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만드신다.
 - (4) 온몸에 심한 피부병이 발생하여 기와로 몸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였

다. 욱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았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욱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쭉기가 나게 한지라 욱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5) 또한 욱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였다. 욱기 2장 9절이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

(6)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도 모두 욱을 죄인으로 취급하였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는 처음에 욱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지만 권선징악의 논리에 빠져서 오히려 욱을 비난하고 훈계하였다. 그렇다고 이 세 친구가 욱을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욱이 훌륭하긴 해도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 친구들이 원죄,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냥 율법적인 수준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이 세 친구와의 논쟁을 기록한 내용이 욱기 4장부터 31장의 내용이다. 이 논쟁의 내용들을 보면 욱은 끝임 없이 자신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친구들은 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욱이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나타나 그들의 논쟁을 정리하여 주었다. 그 사람이 ‘엘리후’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복음엘리트였다. 창세기 3장, 원죄문제, 에덴동산의 문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였고, 탐을 해도 도둑질이라고 했다. 그런데 욱은 당대에 의롭다는 말을 들었고, 자기는 그런 줄 알았다. 너무 훌륭해서 자녀들이 당할 고난을 앞당겨 기도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잠깐 잊은 것이다. 이것을 훈계했던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엘리후와 같은 복음엘리트로 자라나야 하겠다. 엘리후가 욱과 세친구의 논쟁을 정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욱기 3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다. 엘리후의 말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욱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이다. 엘리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욱은 욱기 42장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있다. 그 회개(복음의 발견)의 결과로 욱은 두 배의 축복을 회복하였다.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원죄문제, 자기 의, 사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달은 것이다. 복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우리가 세상 이념, 사상에 좌지우지되어서는 되겠는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사상 이념에서 빠져나오도록 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2. 두 번째에서는 욱기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와 복음적인 교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1) 고난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것이고 희망이다. 문제는 큰 응답의 통로이다. 욱기서는 총 42장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 욱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젊은 청년 복음엘리트 엘리후(렘넌트 70인)와의 깊은 철학적인 변론과 논쟁으로 되어 있다. 우리들이 복음의 기준으로 렘넌트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메시지와 설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세상 지식을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무시할 필요도 없다. 욱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정의론, 죄론, 도덕론, 자연과학, 인생론, 우주과학,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인간의 의 등 다양한 주제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신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삶의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로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과 예배와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2)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녀 자랑을 하지 못한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 자랑을 하지 못한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자랑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기만 해도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서밋이고 70인 제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욱이 진정한 영적서밋이며, 70인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3) 욱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욱기 26장 7절에 지구를 공중에 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드시며” 또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욱기 26장 10절에 보면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동번역에는

욱기 26장 10을 “물의 표면에 둥근 금을 그으시며”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는 지구의 대양이 둥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욱기서는 지구는 우주의 공간에 떠 있고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성경말씀, 진리의 말씀만 하면 된다. 예비된 사람은 지식, 수준 사람과 관계없이 충성된 자, 사명자는 금방 알아듣는다.

(4)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욱기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계획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시고, 어려운 환경도 사용하시고, 질병과 고난과 실패도, 전쟁, 죽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5) 그러나 욱기서는 욱기 42장에 욱의 말년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며,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우리들의 불신앙, 죄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장 오늘부터 응답을 주신다. 욱기서 마지막 부분인 욱기 4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다. “여호와께서 욱의 말년에 욱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이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욱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욱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욱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못해 놓고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결론으로 오늘은 욱기서와 욱의 인생을 통하여 붙잡아야 할 미래전도 6가지 도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미래전도 6가지 도구는 LVTNPO 즉, Leverage, Vessel, Transmission, Nobody, Platform, Outsourcing이다.

1. Leverage(레버리지), 즉 영적인 지렛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
2. Vessel(베셀), 복음의 그릇이다. 고난과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복음과 전도를 위한 큰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다.
3. Transmission(트랜스미션), 전달과 소통이다. 우리는 언약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포럼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다락방이고 지교회이다.
4. Nobody(노바디)이다. 고난의 시간에는 욱처럼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서밋의 자리에 가면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5. Platform(플랫폼)이다. 고난의 과정에서 승리하고 참 복음을 깨달은 성도만이 영적인 플랫폼, 파수방대와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6. Outsourcing(아웃소싱), 영적인 아웃소싱이다. 고난 가운데에서 깨달은 영적인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70인 제자로 만들 수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영적인 제자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셋팅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욱처럼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실 것이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고, 죄의 구덩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인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붙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욱처럼 승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두 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